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정줄리 권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한복음 13:1-15 예수님의 본을 따라 ...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455장 / 주님의 마음을 본 받는 사람 <small>(통일찬송가 507장)</small>
헌신과 나눔	봉 헌 / 최선운 집사, 김태성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살과 세상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읽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김태성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열왕기하 19:1-37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어라!

"너는 무엇으로 기뻐할래?"

-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말라

내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중국으로 갈 때만 해도 나의 꿈은 중국 지하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핍박받는 것이었다. 지하 교회에서 같이 찬양하다가 공안들에게 쫓겨서 아파트 2층에서 뛰어내리고 도망다니면서 수갑을 풀고, 투옥되고 핍박당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렇게 상상하고 중국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내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간이 기차로 이동하는 데 쓰였다. 아니면 딱 한 사람 붙들고 교체하거나 광야에 혼자 앉아 있어야만 했다. 내 친구 중에 경찰이 많다. 그들이 경찰을 지망할 때는 범인과의 총격전, 자동차 추격전을 벌이는 것을 생각했는데 막상 경찰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은 서류 작성이라고 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이 시대에 선교사로서 꼭 배워야 하는 것은 '사역의 열매가 없어도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는가'이다. 땅 끝으로 가면 갈수록 열매를 보는 게 힘들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라 지하로 들어가는 사역이 많아진다. 그래서 생각보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생각해 보거라. 나는 이제 혼자 남겨질 거야.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지 잘 봐두어라. 3년 동안 내 인생을 투자한 모든 열매가 하루아침에 날아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시니 내가 감당할 것이다. 너희도 나를 보고 배우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 메시지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기억나게 하시니까 드디어 이해할 수 있었다. 한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가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쫓고 병을 고치며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한다. '예수님 대단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마귀가 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 위의 맥락에서 풀이 하면 이런 뜻이다. '내일 전도할 때 마귀가 안 나가면 너는 무엇으로 기뻐할래? 내일 사람이 안 모이고, 예배당을 뺏기며, 사역지가 없어지면 무엇으로 기뻐할래? 내일 성대 수술해서 너는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되면 무엇으로 기뻐할래?'

현상적인 이유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버지께서 너를 홀로 두시지 않고 함께하신다는 사실로 기뻐하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땅 끝까지 갈 수 있다. 그것만 준비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땅 끝 복음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기는 자』다니엘 김

교회를 섬기는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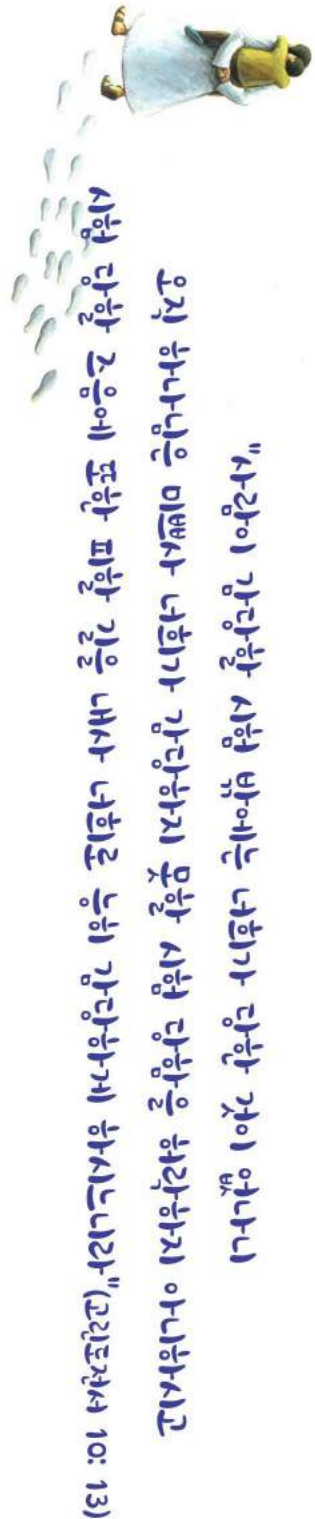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EM PASTOR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교회와사역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더욱 성숙하길 원한다면, 헌신의 영역에서 자라야한다. 많은 이들에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따분한 반복적인 의무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닌 이 놀라운 특권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당신의 헌신이 건강하지 않음을 알려주는 5가지 신호'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성경을 의무감으로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해야할 일의 목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우리 발의 빛이요 날카로운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약속의 신실함을 일깨워준다.

2.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쉽게 놓친다

만약 우리가 성경읽기를 쉽게 놓치거나 아예 완전히 지워버린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것이다. 우린 모두 이 부분에서 있어서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력한 헌신의 습관을 더욱 적극적으로 쌓아올릴 수 있다.

3. 헌신이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말 뿐이다

기도와 헌신은 우리의 요청과 원하는 바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진리와 가르침을 받기 위해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4.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수적인 자료들에 의존한다

조언, 묵상집, 신앙 서적과 방송 등은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어떤 것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다. 우리가 성경읽기를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의 의견과 대체할 수는 없다.

5. 좋아하는 성구만 선택해서 본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맞는 한 가지 말씀보다 전체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한 주간의 기도

'한 해가 마무리 되기 전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 나의 결단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뤄졌는지 되돌아 보게 하소서. 게으름을 이기고 충성된 종으로 달려가는 한 주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가족, 성도와 이웃과도 나눕시다.

1. 금주는 만남과 나눔의 주간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 주일예배 후 성찬사역팀이 모임을 가집니다.
3. 각 사역위원회와 사역팀은 금년 사역을 정리, 평가하고 2019년 사역을 준비합니다. 별도의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4. 선교찬양집회를 11월 30일(금)부터 12월 2일(주)까지 가집니다.
찬양하며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은혜와 능력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준비합니다.
5. 박윤숙 선교사의 코스타 리카와 중남미의 2기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6. 17주간 성경 일독운동이 Oikos 사역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서로 격려하며 점검해줍니다.
7.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와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삶으로 복음을 나눕시다.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는)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	주일예배기도	10/28	11/4	11/11	11/18
		김훈태집사	정줄리권사	김태성집사	정홍렬목사
예배	금요일예배기도	11/2	11/9	11/16	11/23
		구은강집사	김태성집사	정줄리권사	김훈태집사
예배	주일헌금위원	10/28	11/4	11/11	11/18
		김태성집사/최선운집사	박진성집사/오정은집사		
예배	주일안내위원	10월	11월		
		구민집사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 요한복음 12:44-50

어둠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면 빛을 싫어하며 거부하게 된다. 눈이 부시고 아프며 심한경우 실명하기 때문이다. 죄악과 불순종이란 어둠에 익숙해진 사람들 역시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싫어하며 거부하게 된다. 모든 두려움과 추악함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으면 두려움 없이 담대히 참 빛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삶의 구석구석을 밝게 비추시면, 삶 가운데 믿음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이 나타난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을 따르는 구별된 모습, 성화되어 가는 모습이 세상을 밝게 비춘다. 빛을 스스로 만들 수 없지만,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빛을 받아 세상을 향해 밝게 비출 수도 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오늘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날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 날을 기다리며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이다.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며 세상을 밝히는 성도가 되어 한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 / 요한복음 13:1-15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이 깨달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 ... / 요한복음 13:1-15

집사가 고난을 하루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으십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 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자신의 집에 오신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널리 행해지던 일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들 중에서도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려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의 상식에 지극히 어긋난 일입니다. 이 때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을 한 번 상상하여 보십시오. 얼마 전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들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이를 알고 소동이 났습니다. 자신들 몰래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것이 화가 났던 겁니다. 이처럼 화를 낸 근본 원인은 자신들 마음속에도 요한과 야고보와 똑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제자들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발을 지금 예수님이 씻기고 계시는 겁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움질하는 제자들, 다른 사람들보다 뒤쳐질까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고 계십니다. 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목적은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 스스로를 낮추고 서로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살 수는 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며 나타내고 싶은 것이, 가능하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스스로를 낮추어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 2천년 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대로 예수님을 따라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J E S U S L O V E S Y O U

섬김의 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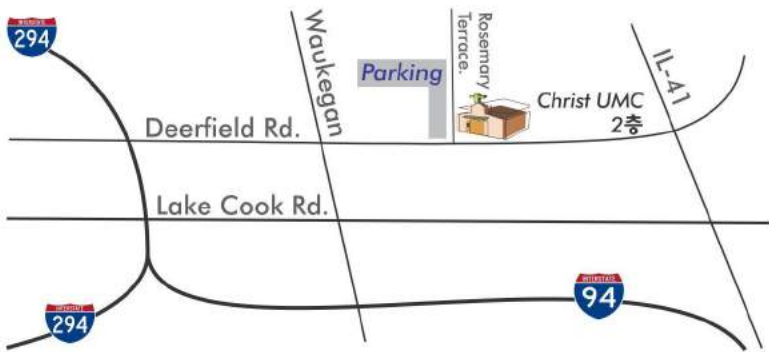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30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5:40 AM
SATURDAY 6: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기쁨, 회복, 나눔

November 4, 2018

감사의 달
만남과 나눔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